

<p>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p>	<p>NEW 순복음Life 제57호</p>	<p>발행일 : 2021.01.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p>
---	--	--

김미진 집사님

2021



아름답고 기쁘게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낙담케하는
 왜냐하면 2021년 심방 말씀의 첫 번째가
 절대적으로 믿으며 신뢰합니다
 이 또한 고쳐 주실 하나님을

기도문

한승권 목사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희망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마저도 힘들게

억압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병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과 과도한 욕심과 세속에 대한 집착적인 생활을 당면시 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성경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다지 담지 않고 너무 자유스럽게 여기기만 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더 늦기 전에 알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외하는 주님,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식되고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수 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불안과 걱정 속에 역병이 종식될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부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세계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며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는 통치와 섭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말은바 직분에 충성되고, 이웃에 대해 분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이 아침을 맞은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정과 명성을 갖고
희망의 닳을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한 이들의 발걸음이 빠풀어지지 않고
힘차고 용기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매 순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하옵나니 외면치 마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 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하고 2021년 신
축년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가
을 받으신 심방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기도와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고 계시리라 믿
습니다.



그동안 문서위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시며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성
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
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히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뵈지도 거의 5년이 되어
갑니다. 어떤 내용과 모양으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지만 부족함 많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들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간
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서위원회에의 협력이 아니라 교회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누구나 하루에 12개쯤은 생겨나는 간증거리들을 모든 성도
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영에 양식이 될까요!

2019년 가을 심방 때 ‘은택을 잊지 말라’ 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말씀이 ‘네 병을 고치심’ 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언제부터인
가 몸이 부쩍 약해지더라구요. 정말 머리 어깨 무릎 발 성한 곳 없이 전체적
으로 찾아오는 통증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정말 나이를 실감하리 만큼 아프더라구요~ 그 중 더 괴로웠던 것은 오른쪽 눈
에 시력이었습니다. 사물이 겹쳐보이고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이 몇 년간 지속
되었습니다. 나이 먹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라 여기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볼 때, 그리고 운전 중 이정표를 볼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겹쳐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니까 글자를 정확하게 읽
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의 모습도 영락없이 찌그러져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며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삶의 일부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 중 ‘이제는 맡고 있는 하나님 일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눈치만 살피다가 일들을 내려놓겠다는 어떤 말씀도 못 드리고 2020년도를 그대로 맞이했었습니다. 이왕에 또 주님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깐 전과 다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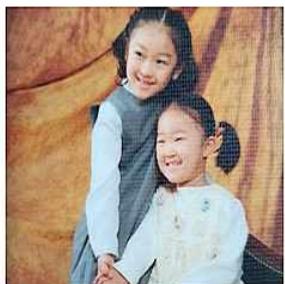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저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눈보다는 몸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눈은 노안으로 여겼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고 몸의 통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심방 말씀을 잊을까 두려워 핸드폰 상태 메시지에 저장하고 틈나는대로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6~7개월쯤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우측 눈에 거미줄이 딱!! 하고 생겼습니다. ‘뭐지??? 눈에 뭐가 들어갔나’ 눈을 비비고 깜빡여보고 별짓을 다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좌측 눈에 작은 날파리 하나가 생긴 뒤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문증’이란 질병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무서웠습니다. 작은 점 하나도 처음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우측 눈에는 눈알 전체를 뒤덮는 큼지막한 거미줄이 쳐졌으니깐요.... 자꾸만 몸이 고장나니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밤새도록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통증과 아침을 맞을 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게 하는 통증으로도 ‘이렇게 오래 살면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줄곧 하며 살았는데 이제 눈알에 거미줄이 쳐졌으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일주일쯤 있다가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망막이 찢어졌고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으니 큰 대학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겠다며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의 심정은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서울에 K안과에 예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헉!!!! 제 우측 눈 망막에 주름이 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면 겹쳐 보이고 찌그러져 보였을 것이랍니다. 이런 경우 잡힌 주름을 다시 펴기 위해 망막을 살짝 찢어 잡힌 주름을 펴 주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인의 눈처럼 잘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눈은 저절로 수술 한 것처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상하다며 고개도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비문증)은 뭐냐고 여쭙봤습니다. 거미줄은 망막이 터지면서 생긴거고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으려만 많은 환자를 대해서 그런지 좀 퉁퉁거리며 성의없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에 간 것인데 수술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설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싶은데 해주지 않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동안 위 아랫줄이 겹쳐 보여서 힘들었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따로 보였습니다. 거미줄 때문에 불편해서 그동안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거미줄을 가지고 또 여러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 전체에 퍼져있던 거미줄이 차츰 사다리처럼 얇아지면서 눈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구 가운데가 흰해졌습니다. 아직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책 읽기도 편해졌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도 찌그러져 보이거나 흐려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다음 병원 방문 때 여쭙보니 비문증은 눈에서 옮겨 다니는게 정상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눈치 채셨지요?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미련하여 미쳐 알지 못하던 눈에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동네에 새로 생긴 병원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몸 여러 곳에 통증도 시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젊은이와 같은 강건함과 산뜻함은 없습니다. 아직 성분 강한 진통제가 들어있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고쳐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신뢰합니다. 왜냐면 2020년 심방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고치심’ 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건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리해 주는 일입니다.

2. 좋아하는 음식과 자주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음식은 할머니 &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집 밥입니다. 회사에서 매일 시켜서 먹다보니 집 밥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와 엄마의 반찬 조합은 최고입니다. 자주 먹는 음식은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는데 불닭볶음면을 먹습니다. 맛있기도 하고 조리하기도 편해서 좋아합니다.

3. 성도님이 잘하는 것 다섯 개 나열해 주세요.

1) 인사 2) 설거지 3)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청소 4) 음식 칭찬 5) 리액션

4. 동생 예서는 성도들이 아는 예서와 언니로서 아는 예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성도들이 아는 예서는 울동 잘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에 착한 아이입니다. 언니로써 아는 예서는 제 옷을 마음대로 입고 자기 옷은 물어보고 입어야 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언니한테만 살짝 이기적인 동생이지만 칠칠치 못한 저를 오히려 잘 챙겨줘서 오히려 언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엄마 인청자 집사님은 가정에서도 완벽하신 분이신가요?

예. 엄마는 집에서도 온화하시고 저의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십니다. 엄마의 완벽한 모습 중 하나는 항상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잘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양가 할머니가 입원 하셨는데 엄마가 간병 하시는 모습은 자녀인 제가 봐도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나중에 시집가서 엄마 반만 해도 사랑받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6. 자신은 엄마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제 생각에는 외형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보나 아빠를 닮았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할 수 있게 하는 말투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아빠와 제가 고쳐야 할 점이 같지만 제가 닳고 싶은 아빠의 모습은 회사의 차장으로써,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써 아빠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닳고 싶어요.

7.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고민을 들어주시는 친구 같은 분,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내 편이십니다. 사소한 일부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까지 망설임 없이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 할 수 있고, 가장 힘들 때 찬양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보다 위로해 주시는 절 사랑해 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8.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직 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교사로서 활동 할 때에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9. 1월은 눈이 오는 겨울이에요. 떠오르는 추억 들려주세요.

1) 중학교 점심시간에 호고 언덕에서 오빠들이 버린 책상 가지고 친구들과 썰매를 너무 신나게 탔습니다. 호고 선생님께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희는 그때서야 지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급히 썰매 타는 것을 멈추고 수업시간 중간에 들어갔던 나름 첫 땡땡이가 생각 납니다.

2) 고등학교 2학년 야자시간에 친구들과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몰래 놀거나 야자실을 탈출한 추억이 떠오르네요. 사용하지 못하게 책상으로 막아둔 길을 난간 타고 가면 빈공간이 나왔는데 바로 그 곳이 친구들과의 아지트였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담요를 깔고 과자 먹으면서 수다 떨던 그 때가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네요.

10. 직장 생활은 재미있나요? 많이 힘들지요?

입사 한 지 11개월 차 회린이(회계 + 어린이)로써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파악조차 못했던 제가 지금은 큰 틀이 보이고 나를 흉내 내고 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 아닌지... 이 길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1년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기특하네요. 앞으로 배워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적응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힘들어지는 무한반복 사회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11.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중이에요. 완벽한 백신이 보급되길

다들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들 잘 지키시는 일이겠지만

1) 손 깨끗이 자주 닦기 2) 마스크 생활화하기 3) 불필요한 곳 돌아다니지 않기

회사에서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서 그런지 요즘은 없으면 어색하더라고요. 다들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12. 구역보고서에서 내게 제일 부족한 항목란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아직 사역하는 일이 없어 봉사나 헌신 항목이 부족합니다. 2021년에는 구역장,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3. 감사한 일 많으시지요? 최근에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께 꼭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 한가지만 들려주세요.

3달 전 제가 회사에서 급여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를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고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쉬운 일이지만 항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키는 일을 했는데 감회가 새롭고 기뻐합니다. 갓난아이에서 유치원생이 된 느낌이랄까요. 어서 초등학생이 되고 싶네요..

14. **성도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만들고 싶은 가정,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멋지게 스케치해 주세요.**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해주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교회에 다니며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미래의 2세도 믿음의 자녀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아버지입니다. 어렸을 때 육상 선수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주말마다 축구를 하러 가시고 축구 시청을 즐겨하시고는 합니다.
16.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본받고 싶은 롤모델 성도님은 누구인가요?**
 교회에 본받아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같은 청년회에 있는 김연훈 청년입니다. 센스 있는 멘트,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하는 모습, 학생·청년들을 이끄는 리더십, 예의 바른 모습 등 인간적으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닮고 싶습니다. 낮간지럽지만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가진 멋진 오빠입니다.
17.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만약 기도한 것이 더디 이뤄진다 생각될 때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의 기도와 노력이 부족해서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컸을 거예요. 기도한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나 아직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기도는 내게 (청심환) 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어렵고 걱정이 생길 때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할 때 기도를 하면 쿵쿵 쿵쿵 거리던 심장이 진정이 돼서 청심환이라 생각합니다.

19. 2021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올해 취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한 사람 몫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2021년은 빨리 성장해서 1.5인분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20.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 긴 장행시 부탁드립니다.

새 : 새해에는

해 : 해결하지 못한 일

복 : 복잡했던 일

많 : 많이 기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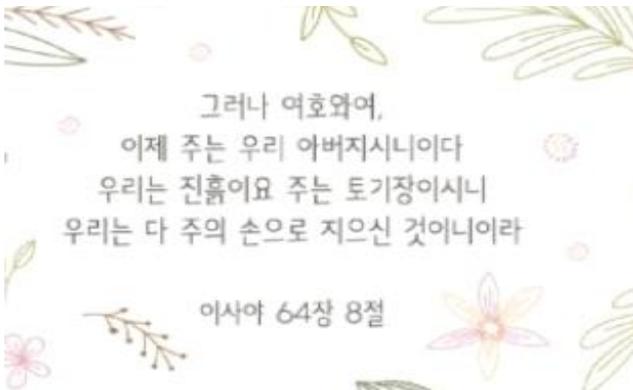
이 : 이로우신 주님께 다 해결

받 : 받으세요.

으 : 으샤으샤 힘내시고

세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 :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극복합시다!!



<권찰 일기~>

2020년 12월 18일 날씨 맑음

코로나19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확진자들 때문에 아이들과
집콕 하고 있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경준이는 한밤중 가려운 발을 부비고 긁어대는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두, 세 시간씩 발을 주물러 주고 안아주며 간신이 재우고 나서 잠 좀 자려고
하니 벌써 날이 밝아온다. 눈 뜨자마자 밥 찾는 경준이 성화에 떠지지 않는 눈
을 부비고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오늘은 어떤 일인지 아침을 잘 먹지
않는 주희도 경준이와 경쟁이라도 하는 듯 열심히 밥 먹는 모습을 보니 한없
이 이쁘고 사랑스럽다. 아이들 먹이고 치우고 간식 챙겨주고 조금 움직이다 보
니 점심시간이다. 점심을 준비를 하는데 아까는 그렇게 서로 사이 좋게 밥 먹던
녀석들이 지금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다.

"옥 ~ 이주희, 이경준!!!! 이리와 누가 싸우래!!"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 서로 화해시키고 점심을 차려 먹이고 경준
이를 재웠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심심해 하는 주희와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의 시간이 좋은 주희는 그 시간 최상의 기분이었다. 이젠 자고 있는 동생을 깨
워 살갑게 잘 잤는지 물으며 잘도 데리고 놀아준다. 그 사이 난 좀 쉬고 싶었
지만~~ 엄마의 휴식엔 관심 없이 너무 신나버린 두 녀석은 실새 없이 이것저
것 요구하는 것이 많다. 간식을 챙겨 먹이니 더 팔팔해진 아이들을 뒤로 하고
나는 또 저녁 준비를 했다.

"휴~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는 구나"

저녁 먹고 치우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니 오늘 하루가 끝이 난다. 밥하고 치우
기를 반복하다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이 시간부터는 나의 자유 시간이다. 오늘
하루도 난 고생했다.

오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지만 내일은 화내지 말
고 잘 돌봐 줘야지. 아가들아~~~ 사랑해 ~

조은희 권찰

성도님들의 이모저모♥



모처럼 삼운이 회사 쉬는날
삼운이 생일을 맞아 온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경애 집사)



마스크가 필수된 요즘..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진영 집사)



요즘 유행한다는 트렌드 요리
간장닭 조림을 해보았어요.
처음 한 음식인데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주네요
또 해줘야 겠어요 ^^
(윤희자 전도사)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로 인하여
 ← 긴급한 아이들만 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마냥 신나하고 있네요.
 이제는 마스크 쓰는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다들 벗지 않고 잘 쓰고 있어요
 (김정임 집사)



가을이 지나니 실려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너무나 할 것 없이
 그순간 그곳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자루 가득 낙엽을 쓸어 모았고 모은 낙엽이
 7자루가 나왔대네요.
 깨끗한 교회를 위해 봉사해주신
 성도님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문서위원회

라이프지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위원회 회원이 아닌
 성도님들도 작업 할 때
 다 함께 도와 주신답니다.
 그동안 많이 해보셔서
 이젠 다들 베테랑이 되셨습니다.

* 출발! - essay.254 -



* 힘차게 출발해요!
단,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해요~^^*

투린 그림 찾기 2020 NEW

투린곳은 5곳



성경 퍼즐

1 만				
2	3 이			
	4 세	5		
		도		
	6 메			
	7 기	8		
		9 이후	10	
			11 명	12

가로

2.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햇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00가 굉장히 많아. 천사인 나는 몇 살 같니?
4. 사람의 몸은 작은 00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단다.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6. 된장, 간장을 만드는 재료, 콩을 삶은 다음 네모나게 말려서 만든단다.
7. 00이 좋은 날은 기도하고 00이 좋지 않은 날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지?
9.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넌 바다의 이름은?
11. 군사의 다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자 이집트 00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바짝 쫓아 왔었던단다.

세로

1.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먹을거리.
3. 십세, 000, 삼십세 순서로 나이를 셀 수 있지.
5. 포도로 만든 술, 당시 사람들은 지역 특성상 포도를 많이 재배했고, 이걸 술로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마셨단다.
6.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만나와 함께 주신 식량, 이 새는 낮게 날기 때문에 잡기가 쉬었던단다.
8. 천사 하면 떠오르는 색은 흰색, 그러면 공주님 하면 떠오르는 색은? 붉은색 말고 비슷한 색 있잖아!
10. 바다를 지키는 해군 병사.

<지난호 정답>

					1	메
						뚜
				2	아	기
					이	
					러	
					브	
				3	우	유
		4	수	박		
	5	개	학			
	구					
6	파	리				

감사릴레이

김경숙 권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남편의 일거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없지 않았거든요. 다른해의 3분에 1정도 밖에 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일이 들어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추워지면서 일이 있다가도 끊어질 때거든요. 많은 일은 아니지만 얼마간의 일거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남편과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일자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자 이영주 집사

직장생활 7대 불가사의



1. 눈 마주치면 내 일이 된다.
2. 할 줄 안다고 하면 내 일이 된다.
3. 아이디어 내면 내 일이 된다.
4. 월급 루팡이 있어도 내 일이 된다.
5. 일을 너무 잘하면 내 일이 된다.
6. 일을 너무 못해도 내 일이 된다.
7. 야근하다 보면 내 일이 된다.

칭찬하십시요!

전수현 집사



2020년은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일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데 그런 신앙의 모습조차도 힘들었던 부끄러운 기억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아니 더욱 주님을 붙잡고 더 열심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의 사랑하는 전수현 집사님입니다. 우선 보건위원으로 그 사명이 어느 해 보다도 필요했던 부분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성전 중심의 삶을 실천하셨죠. 항상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문서위원으로 간증을 담당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애쓰던 모습이 어떤 땀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주님이 고스란히 보셨고 흐뭇해 하셨을 것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저 한 번, 한 달, 한 해를 위해 달려온 길이 아님을 알기에 충성스런 그 모습에 반하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전수현 집사님을 2021년 올해에는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 고맙고 축복합니다.

제목 : 감사한 오늘

계성초등학교 5학년 3반 전단아

여러분은 2010년 3월 26일,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러나 점점 잊혀 가는 죽음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마도 이날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바다 위 송고한 책임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날의 희생을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바다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안함이 바다를 순찰하던 중 어뢰 공격을 받고 불과 몇 분 만에 배꼬리 부분이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슬프게도 배 위에 있던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58명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하늘도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저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즐겁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편안히 잠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날 배 위에서 희생한 분들이 언제나 친구같이 다정한 우리 옆집 오빠와 같은 젊은 학생이었다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가끔 해군 시절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 저는 흘려듣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오로지 책임감 하나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해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당진항만 안보 글짓기 대회를 통해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 슬픈 희생 덕분에 갖게 된 평화의 감사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조에 책임을 다하다가 목숨까지 잃으신 한주호 준위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오늘 역시도 밤낮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편안히 잠 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희생을 통해 지켜지고 있음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일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은 제게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먼 존재로 느껴지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공부해서 우리 또래에게도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다면,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슬픔 속에서도 자랑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이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민족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장하여 지금의 감사함에 보답하기. 둘째,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여서 화목한 사회를 만들기. 셋째, 우리를 지켜주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이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진 항만 안보 글짓기 대회 우수상 수상작

제목 : 궁금한 바다

계성초등학교 2학년 3반 전슬예

바다바다 맛있는 바다
바다바다 맛있는 바다
바닷물을 후르룩 짹짹
아이! 짜!

바다바다 맛있는 바다
바닷물에 음식을 찍어 남!
아이! 짜!

바다바다 맛있는 바다
바다 안에 맛있는 것 천지
고등어 연어 해삼 문어 오징어
모두모두 맛있어

맛있는 바다는
궁금한 것도 하늘과 땅만큼

바다의 왕 상어
애기 상어도 내 키보다 클까?

대왕오징어는
기다란 버스보다 길까?

아주 작은 플랑크톤은
미세먼지보다도 작을 걸까?

화가 난 복어는
풍선이 될 수 있을까?

불가사리는
바다를 밝히는 별이 될 수 있을까?

구불구불 미역은
물고기들의 가발인걸까?

인기배우 흰동가리는
영화를 찍을 때 피곤하지 않았을까?

찐득한 문어는
빨판으로 우리집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은데

바다 속에는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당진 향만 안보 글짓기 대회 장려상 수상작



존 바이든



존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가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화로 청소와 중고차 중개업을 전전했고, 어려운 생활로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 바이든은 10세 때 부모와 델라웨어로 이주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와 델라웨어 모두를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고, 중서부 블루칼라(노동자)를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는다.

존 바이든(77) 전 부통령은 30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 이후 최고령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두기까

지, 반세기 동안 워싱턴 정치권 주류를 대표해 왔다. 동시에 서민과 노동자에게 ‘이웃집 조 아저씨(Uncle Joe)’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이고 친근한 면모를 갖춘, 보기 드문 유형의 정치인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더듬증이 심해 따돌림을 받고 주먹다짐도 했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가 ‘네 앞서가는 생각을 말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말한 적 있다. 그는 델라웨어대를 거쳐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로스쿨 졸업 성적은 85명 중 76등이었다. 또 천식이 심해 군 징집이 면제됐다. 24세엔 첫사랑 대학 동창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29세이던 1972년 델라웨어의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 당시 공화당의 현역 거물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처음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선거 6주 뒤 교통사고로 아내와 돌배기 막내딸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두 살·세 살 된 두 아들도 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절망 속에서 의원직을 포기하려던 그는 아이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울면서 취임 선서를 했다. 이후 수십 년간 그는 델라웨어의 자택과 워싱턴 의사당까지 매일 암트랙 기차로 왕복 4시간 통근을 했다. 두번째 아내이자 델라웨어대 영어과 교수인 질 바이든(68)과는 1977년 재혼했으며, 슬하에 사회복지사인 딸 애슐리(39)를 뒀다.

그의 장남 보는 델라웨어주 법무 장관까지 지내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2015년 45세에 뇌종양으로 숨졌다.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이 충격으로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남은 아들이 차남 헌터(50)다.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서 방향한 헌터는 미망인인 형수와 동거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등 복잡한 사생활로 구설을 낳았다. 헌터가 아버지 직위를 이용해 국내외 사업을 했다는 의혹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의 최대 공격 소재가 됐다.

비극적 가정사는 역설적으로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는 득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가 상원의원만 내리 6선(選)을 한 데는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연민의 감정이 깔려 있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은 50년간 바이든이 슬픔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에게 마음의 빛을 쬐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은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된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든의 36년 의정 생활에 대한 평가는 공화당과 초당적 협력에 힘썼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상원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지내면서 협상의 달인이라 불렸고, 보수 인사들과도 두루 친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 출마 당시 보수적인 연장자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도, 자신에게 부족한 그의 경륜과 협상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내가 바이든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가 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독려하고 어떤 사안의 복잡한 측면을 모두 살펴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1988년엔 연설 표절 의혹으로 사퇴했고, 2008년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오바마에게 밀렸다. 그렇지만 생애 마지막 도전인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 정권의 분열과 혼란 속에서 미국인이 갈망한 경륜과 안정, 친화력 같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잇대(Ittai)



뜻 : 짝하다

블레셋인 잇대. 가드로부터 포로 6백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온 블레셋 인으로 후에 다윗에게 충성하였다

([삼하5:18](#)-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그는 압살롬 토벌 제3분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삼하 18:2).

그는 블레셋 지방 가드 사람으로서 블레셋 장정 6백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벳메르학에 머물 때 동행한 인물이다(삼하 15:13-18).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삼하 15:19-20) 이러한 다윗왕의 돌아가라는 권고에 대하여 잇대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결단을 내린다. [여호와와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삼하 15:21) 하는 수 없이 다윗왕은 동행을 허락했으며, 잇대는 변함없는 충성으로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의 반란군과 대항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삼분지 일은 요압의 수하에, 삼분지 일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히고 삼분지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수하에 붙히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삼하 18:1-2)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심사숙고를 요하는 특이한 현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즉 다윗의 아들이요 총애를 받던 압살롬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반란군의 통수자가 되어 아버지를 공격하고, 반면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사람 잇대는 다윗의 천부장이 되어 압살롬의 반군과 대항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나, 반면 이방인인 우리들 중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악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불신자도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외모 콤플렉스

1828년, 러시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외모는 부모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넓적한 코,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 눈, 큰 손과 발...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못생긴 외모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제 외모를 아름답게 해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소년의 외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면서 자신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는 자신을 계속 괴롭혀 온 외모 콤플렉스를 해결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이 모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주옥같은 작품을 집필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어느 사람도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득 품은 아름다운 작가, 역사에 길이 남을 세계적인 작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세상이 만든

굴레에 갇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긴 '마음'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와 똑같은 영혼을 알아보았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 톨스토이 -

시사용어 Briefing

키테넌트(Key Tenant)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핵심 점포를 뜻하는 말로,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라고도 한다. 키테넌트의 존재 여부는 상권의 유동인구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 키테넌트 상점을 쇼핑몰로 입점시키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일반적으로 대형 서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마트, 유명 체인 커피숍, 글로벌 SPA 의류 브랜드 매장 등이 키테넌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았다가 밥을 먹거나, 대형 마트에 들러 장을 본 뒤 커피숍까지 이용하는 식으로, 영화관이나 마트를 찾은 고객이 다른 상점들까지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에는 영화관과 패밀리 레스토랑 ▷200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SPA 브랜드 ▷2010년 이후에는 대형 서점과 유명 커피숍 등이 키테넌트 역할을 하고 있다.

오픈뱅킹(Open Banking)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18일 정식 가동됐다. 은행권 공동 인프라. "공동결제시스템"이라고도 한다.

덤벨경제(Dumbbell Economy)

덤벨 경제(Dumbbell economy)란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및 운동 관리 앱 사용 증가, 스포츠 밴드 사용 증가 등 건강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은혜로운 찬양가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공동회의 / 1월 1일 오후12시 비대면(단체카톡)
2. 직분자임명, 연말시상 / 1월 10일 오전 11시
3. 졸업예배, 장학금수여 / 1월 10일 오후 5시
4. 제직헌신예배 / 1월 17일 오후 5시
5. 축구부동계훈련 / 1월 18일~21일
6. 헌아식 / 1월 24일 오전 11시
7. 구역장헌신예배 / 1월 24일 오후 5시
8. 구역장단합대회 / 1월 25일 오후 7시

● 공지사항

1. 생활실천표어 / 축복주고 넘치게 하리라
2. 신앙서적 /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윌슨'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김민우청년 / 취업
2. 권찰 직분 임명 / 김경숙성도, 조은혜성도, 김성광성도, 유혜진성도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 위원: 박기숙 집사
- 이종희 집사
- 정현미 집사
- 전수현 집사
- 조은희 권찰
-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